

2017년 5월 17일, 조천읍 와흘리 임완송 씨 댁, 강수경 조사.

임완송(남, 1933년생, 조천읍 와흘리)

- 줄거리: 어떤 사람이 와흘로 오는데 반짝하면서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도깨비를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꺼내 보니 붉은색 헝겊에 감아진 말 똥이었다.

[조사자] 저기 도체비 얘기, 도체비 얘기도 뭐 재미난 거 아는 거 있수광?

[제보자] 그 도체비는 들어낫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아버지네 그 시절 그분네들이 앓아서 그 도체비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계난 지금은 전기 때문에 모든 차량 뭐 전기 때문에 도체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멕을 쓰진 못해가지고서 나오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그 시절엔 불도 엊고 야튼 어둑으믄 불 쓴 데는 등피불도 등피불, 아니믄 각제기불 요만한 것에 내가 가지고서 쓰는 거, 그 불을 싸서 살았는데. 그렇게 허는 어둑은 시절이라 아이고 밤중에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도체비 난다고. 도체비는 뭔고허게 되믄 빤씩빤직하면서 그냥 사름도 막 그냥 홀려가곡 사름을 그냥 춤 그냥 정신적으로 막 그 홀려, 홀려간다는 말은 막 그 데려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헌다고 그렇게 허면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린 때 그 말을 들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조천에 가서 와흘로 올라오는데, 와흘로 올라오는데 아 도체비가 나타나 가지고서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나타나 가지고서 허니까. 아 그 도체비를 폭 심어 가지고서 그냥 아 그냥, 그거 그냥 그 도체비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막 그 사람같이 보이고 구신같이 보이고 헤 가지고 그렇게 짐승같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빤씩빤짝 그랬지. 아 어떻게 힘은 없는 건지 도체비를 심어 가지고서 그냥 손에 뻥뻥 몰아 가지고서 보것디 담아 가지고 보금지에 와서 뒷날은 깨서 보니까 무슨 물뚱, 뚱에다가 붉은 험벽세긴가 감아진 거더라고 그런 말이, 그런 말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웃음)

[조사자] (웃음)

[제보자] 옛날은 아이 어둑으믄 혼자 나가지 말라고 더구나 어리니 도체비 난다고. 무섭다고. 그 도체빌 하나이 구신같이 야튼 그 무섭게 생각하는. 헤난 모양이지요 뭐.

[제보자] 아, 그건 우리가 혼 여남은 살 때 아버지네 그 중 연령 그 어른덜이 얘기하는 거를 들은 말이죠 뭐.

- 핵심어 : 도체비, 도깨비, 보금지, 물뚱, 말뚱험벽세기, 조천, 와흘, 구신, 귀신, 주머니